

* 이것이 정의이고, 이것이 자비입니다.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이신 **Mr. Perry**씨는 그가 어렸을 때, 가족들과 페리를 타고 솔트 스프링 섬으로 갔던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를 기관실 문 앞으로 안내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들은 기웃거렸고, 한 노동자가 그들을 보고 화가 난 표정을 짓자, 그의 친구는 그 남자에게 무언가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와 **Mr. Perry**씨는 돌아왔습니다. 여행의 끝 무렵에 페리 회사는 **Mr. Perry**씨의 집으로 전화를 했고 (그 당시 그들은 모든 승객의 명단을 가지고 있었고 누가 아이가 있는 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Mr. Perry**씨의 아버지에게 아이들이 그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그것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지 물었고, **Mr. Perry**씨는 바로 그의 면전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 이 이야기에서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 **Mr. Perry**씨가 여전히 그 거짓말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고, 이야기를 나눌 때, 그의 얼굴이 붉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그의 아버지께서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가 진실을 말할 수 있었을 지를 알고 싶어했습니다. 그리고 **Mr. Perry**씨는 결코 아버지께 진실을 말하지 않았고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불쾌하게 하고 다치게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이 10대일 때, 그가 이유 없이 어떻게 그의 부모에게 불쾌하게 굴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언급했듯이, 한번은 아버지와 제가 말다툼이 있었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소리를 질렀고,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제게 공격적으로 다가와서, 저는 아버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http://thejustmeasure.ca/2018/08/26/commitment-to-the-eucharist-gives-stability/>). 어떻게 만회할 수 있을까요?

제 1 독서는 속죄에 관한 것입니다. “그를 으스러뜨리고자 하신 것은 주님의 뜻이었고 그분께서 그를 병고에 시달리게 하셨다. 그가 자신을 속죄 제물로 내놓으면 그는 후손을 보며 오래 살고 그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 지리라... 의로운 나의 종은 많은 이들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짊어지리라”(이사 53:10~11).

- 첫 문장에 집중해 봅시다: '그를 으스러뜨리고자 하신 것은 주님의 뜻이었다.' 분명히,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고통을 대신 떠맡으신 것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가 전에 이야기했던 신학적 차이, 하느님의 지시적 의지, 즉, 그분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과 그분이 일어나기를 허락하시는 것 사이의 신학적 차이를 만들지 않습니다 (<http://thejustmeasure.ca/2018/10/21/two-reasons-why-god-allows-us-to-suffer/>). 그러므로 이 문장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벌하시기로 선택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벌을 받으시려고 자유 의지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 속죄란 우리 모두가 속으로는 인정하지만, 그것을 무시하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부모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고의적으로 끼친 고통에 대해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처벌은 뭔가 잘못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정의의 불균형이 존재하고, 우리는 그것을 만회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제가 아버지를 때렸을 때, 아버지 저를 용서하셨을지 모르지만, 저는 아버지와 우리 관계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에게 끼친 고통을 만회하기 위해서, 저는 그 고통을 떠맡고, 그에게 보상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 이렇게 하는 데는 제가 사과를 하거나, 그를 대신해서 참회를 하거나, 아니면 그를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요점은 제가 저지른 죄악에 대해 속죄하기 위해

희생한다는 것입니다.

게리 채프먼 박사는 그의 책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를 쓴 것으로 유명하며, 그의 생각 중 하나는 누군가에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과하라는 것입니다. 사과에는 다섯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 그의 세번째 요점인 '어떻게 하면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는 속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훔친 아이폰을 반납하고,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해야 합니다. 사랑의 언어가 인정하는 말인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들에게 그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말하고, 봉사인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들을 위해 뭔가 특별한 것을 해서 우리의 후회를 증명하고; 선물인 사람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그들에게 줍니다; 함께하는 시간인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들과 특별히 추가의 시간을 보내고; 육체적 접촉인 사람들을 위해서는, 꼭 안아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Gary Chapman, *A Teen's Guide to the 5 Love Languages*, 105). 이러한 행동들은 희생이고, 추가적인 일을 해야 하며, 약간의 고통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제 1 독서로 돌아갑니다.'그를 으스러뜨리고자 하신 것은 주님의 뜻이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끼친 모든 고통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분께 진 빚은 엄청납니다. 만약 우리가 살면서 초래한 모든 죄악과 부모님, 가족, 친구, 심지어 낯선 사람들에게 끼친 고통까지 생각한다면, 우리가 받아야 할 처벌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느님께 보상할 수 없습니다.

-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사랑으로, 자처해서 우리의 벌을 받으시기로 선택하셨고, 그것은 말 그대로 고통으로 그의 몸과 영혼을

으스러뜨렸습니다.

4명의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두 아들. 그들은 서로를 사랑했고, 그들의 하루의 가장 좋은 부분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그들이 있었던 일들을 공유하고, 웃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 하지만 막내가 12살이었을 때, 그는 부모님을 무시하기 시작했고, 가장 가슴 아픈 것은 그가 저녁 식사에 늦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부모님은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는 친구, 숙제, 바쁜 일 등 나쁜 핑계를 댔습니다.
- 그의 아버지는 어머니가 그를 위해 열심히 요리했고, 만약 그가 계속해서 늦게 나타나면, 그는 저녁을 먹지 못 할 것이라고 그에게 경고했습니다. "너가 이렇게 계속 엄마한테 무례하게 굴 수는 없어." 그리고 아버지는 그에게 두 번째 경고, 그리고 세 번째 경고를 줬지만, 그 아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 어느 날, 그는 또 늦게 나타났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음식을 대접했고, 그 다음에는 그녀 자신, 그 다음에는 장남에게 음식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막내에게는 빈 접시를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습니다. "이건 공정한 거야." 그들은 식사 중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막내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했고, 배고픔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 엄마와 아빠는 밥을 먹었지만 형은 음식에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형은 엄마와 아빠를 바라보았고 그들은 둘 다 그가 무엇을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동생의 빈 접시를 가져오고 자신의 음식이 담긴 접시를 동생에게 건네며, "이것은 자비야."라고 말했습니다. 동생은 밥을 먹었지만, 형은 그날 밤 배고픔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제1 독서는 '의로운 나의 종은 많은 이들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짚어지리라.'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말형, 예수님께서는 동생들의 벌을

받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정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보상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중심 메시지 중 일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십니다(André Regnier, *Clear & Simple*, 66-67).

-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한 죄로 인해 하나님과 거리를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속죄하심으로서 우리를 아버지와 화해 시키시려고 오셨습니다.
- 우리 모두를 위한 질문은 하느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려는 예수님의 초대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싶은가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전에 보여드렸던 관계 다이어그램입니다(). 위의 세 이미지는 헌신적인 수준을, 미혼일 때와, 연애했을 때, 결혼했을 때로 보여줍니다. 아래 세 개의 이미지는 우리 삶에서 예수님이 계신 곳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삶 바깥 쪽, 우리 삶의 일부, 또는 우리 삶의 중심 중 어디에 계신가입니다.

- 아래의 세 이미지 중 어떤 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계신 곳이 어디인 지를 나타내나요? 여러분은 그분께서 어디에 계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세 번째 이미지로 옮겨서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중심으로 만들고 싶으신가요?
-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는 많은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기 기도의 한 예가 있습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께서 하느님의 아들이시고, 저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을 충실히 따르고 당신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당신께서는 저를 아시고 사랑하십니다. 저는 당신을 믿고 제 모든 인생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저는 당신께서 저를 강하게 하는 힘이 되시고, 저를 떠나지 않는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는 교황 베네딕토 16세로부터 온 것입니다. 궁금하실 경우를 대비해서 링크를

올립니다(https://www.vatican.va/content/benedict-xvi/en/homilies/2011/documents/hf_ben-xvi_hom_20110821_xxvi-gmg-madrid.html). 그리고 그것은 어디에서나, 심지어 우리 마음의 침묵 속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독서는 5주 후, 11월 21일에 있을 우리의 그리스도를 위한 도전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다시, 질문은: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셨나?를 계속 생각하고 기도해 주세요.

제가 10대였을 때, 제가 얼마나 하느님과 다른 사람들을 불쾌하게 했는지, 그리고 제가 한 일에 대해 결코 보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진 빛을 갓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정의입니다. 그분께서 고해성사를 통해 저의 죄를 거두시겠다고 하셨을 때, 저는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비였습니다. 그때가 내가 예수님을 제 인생의 중심으로 모신 때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삶에 정의의 필요성과 하느님의 자비의 제안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